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35) (6/25/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20 장 고독과 침묵을 사랑함, 6-8 절

시 6:6 -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요일 2:17 -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잠 14:13 -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잠 23:7, 31-32 - 7.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3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쏘 것이며.

전 3:11 -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6. 경건한 심령은 침묵과 고요 가운데서 진보하고, 성경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눈물의 샘을 발견하고, 밤마다 그 샘에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함으로써, 점점 더 세상의 요란함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와 점점 더 친밀하게 됩니다(시 6:6). 사람이 자신의 지인들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이름을 떨치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소홀히 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영혼을 돌보며 살아가는 편이 더 낫습니다. 신앙인에게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고, 사람들의 이목을 멀리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7.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우리는 왜 그렇게 참견하고 싶고 상관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갑니다(요일 2:17). 오감의 욕망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밖으로 나돌아 다니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무거운 양심과 심란한 마음 외에, 우리가 집으로 가져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갔다가 슬픔만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다반사이고, 즐거운 저녁은 씩씩한 아침으로 이어지기 일쑤이지 않습니까?(잠 14:13). 이렇게 모든 육신적인 기쁨은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그 끝은 씩씩한 괴로움과 허무함입니다(잠 23:7, 31-32).

8. 당신이 골방에서는 볼 수 없고, 밖으로 나가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만물은 하늘과 땅의 여러 요소들로부터 만들어졌고, 당신은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 아래에서 영구한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이 땅에서 당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이 당신의 눈 앞에 일시에 펼쳐진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환영에 지나치 않는 것이 아닙니까?(전 3:11). 그러므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당신의 죄들과 잘못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헛된 일들은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당신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일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걸고서,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당신에게로 부르십시오. 당신의 골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십시오. 당신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평안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쓸데없고 무익한 얘기들을 듣지 않는다면, 더 큰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종종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심란해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과 해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 중의 하나는 주님과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들을 복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한다. 시 1:1-2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며 골방에서 기도와 묵상 가운데 주께 나아가는 사람은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심령을 씻어내리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시 6:6 -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성도의 눈물은 남을 향한 헌신과 사역 중에도 나타난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사역했는지 설명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고백했다. 행 20:19, 31 - 19.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31.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남몰래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주의 사랑으로 사역하고 섬길 때 눈물로 행하게 된다.

경건을 추구하는 성도는 이 세상과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약 4:8 -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요일 2:15-16 -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심령의 중심을 살피며 그 중심이 주님께 합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쓴다. 시 51:10-12 - 10. 하나님이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영성의 사람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하고, 불필요한 관심과 참견도 절제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오감과 정욕을 자극하는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이다. 롬 12:3 -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잠 26:17 -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롬 13:14 -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일 2:17 -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도가 골방에서 고독과 침묵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으며,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시 42:1 - 하나님이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 63:1 - 하나님이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니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주님과와의 친밀한 영적 교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세상일로 인한 근심, 걱정, 번민으로 가득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게 하시고,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영혼의 만족과 평안이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3. 우리가 속한 미국장로교가 말씀 위에 바로 서며, 참된 영적 갱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침체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적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